교회소식 Announcements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지난 주 (7/5/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995.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빌립보서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2026년 7월 12일 (664호)

함께하는교회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Worship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영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갈라디아서 4:8-20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돌아가지 마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7/19/26	7/26/26
김주연	이우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지난주 설교요약 Sermon Summary

종에서 아들로

바울은 우리가 어릴적에는 종과 다름없었다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조금 나보다는 나은 존재, 저 사람은 나보다는 좀 못한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다 종이었고,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가 아니였다면,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노릇이라는 한국어의 의미는 역할, 행위를 뜻하는데 약간 비하하는 듯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종노릇했다는 것은 그 안에 빠져서 세상의 유치한 역할놀이를 반복했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말입니다.

종노릇이란, 죽음의 공포 때문임을 히브리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광야로 끌고 가는데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기 싫어 하는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머물면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나를 징계하시려고 하실때 조차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정해 놓은 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 놓은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때를 정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벌벌 떠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배는 우리의 인생, 즉 성전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였다는 건은 바로 제자들의 시선인 것입니다. 즉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풍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소멸되어져 가는 상황을 만드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면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늘 풍랑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자와 자녀로 살아가는 자의 차이가 바로 풍랑 앞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한 유치한 교훈이나 유치한 풍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믿음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